

“5·18, 문화·경제적 연계 방안 모색해야”

‘40주년 이후 방향’ 원탁 토론
“‘5·18경제’ 새로운 개념 도입
평화인권관광 등에 활용해야”
국가 차원 연구기관 설립 필요



40주년 이후 5·18의 방향설정을 위한 원탁토론회가 29일 광주시 동구 5.18기록관에서 열렸다. /최현배 기자 choi@

5·18을 문화·경제와 연결해 궁극적으로 ‘5·18 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둔 시기인 만큼, 이제는 5·18 기념사업이 추모·정신 계승과 전국화·세계화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18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5·18순례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문화·경제적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5·18이 자연스럽게 규모화되고 대형 프로젝트로서 자리잡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5·18기념재단은 29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40주년 이후 5·18의 방향 설정’을 주제로 원탁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근식 서울대학교 교수의 총론발제를 시작으로 각 분야 지정 전문가 13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5·18 정신 세계화와 함께 ‘5·18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가 차원의 5·18역사관·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근식 교수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객은 2003년 53만명에서 2014년 19만명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60만명을 기록했다”며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참배객 규모가 들쭉날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광주는 5·18순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객 통제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다크 투어리즘이나 평화인권관광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5·18재단이나 5·18 기록관, 광주비엔날레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경제적 의미를 지닌 장소를 활용해 ‘5·18경제’라는 개념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과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장도 정 교수가 제시한 ‘5·18경제’에 대한 개념에 동의했다.

정 부이사장은 “광주의 발전은 단지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모색돼야 한다”며 “광주가 대안적 사회경제 모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장도 “인권과 문화는 결국 경제와 결합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5·18정신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5·18연구소와 기념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제의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5·18 역사왜곡은 일시적이지 아니라 집권세력의 성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국가차원에서 5·18역사연구소를 만들어 후대에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구 센터장 또한 “매년 세계인권도시 포럼 등을 통해 광주로 외국 연구자를 초청하고 있지만 광주 연구자들이 해외 행사에서 5·18정신을 발표하는 경우는 드물

다”며 “규모가 큰 연구소를 세우고 우수한 연구자를 배출해야 5·18정신 국제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또 자치단체·재계·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해 정치·경제·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5·18정신 논의체제를 만들고, 국가 차원의 기념관·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5·18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이후 5·18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자료집으로 제작해 5·18 40주년 이후 기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9 달뜨기 03:15
해질 19:38 달지기 18:04

짙름두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 | | | | | |
|----|-------|-------|-----|-------|-------|
| 광주 | 구름 많음 | 25/35 | 보성 | 맑음 | 23/33 |
| 목포 | 맑음 | 25/31 | 순천 | 맑음 | 25/33 |
| 여수 | 맑음 | 25/32 | 영광 | 맑음 | 25/33 |
| 나주 | 구름 많음 | 25/35 | 진도 | 맑음 | 25/31 |
| 완도 | 맑음 | 24/31 | 전주 | 구름 많음 | 25/33 |
| 구례 | 구름 많음 | 24/33 | 군산 | 구름 많음 | 25/31 |
| 강진 | 맑음 | 24/33 | 남원 | 구름 많음 | 23/32 |
| 해남 | 맑음 | 23/33 | 흑산도 | 맑음 | 23/28 |
| 장성 | 구름 많음 | 23/33 |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서해 앞바다 | 남~남서 | 0.5~1.0 | 남~남서 | 0.5~1.0 |
|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1.0~2.0 | 남~남서 | 1.0~2.0 |
| 안남 앞바다 | 남~남서 | 0.5~1.0 | 남~남서 | 0.5~1.0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남~남서 | 0.5~1.5 | 남~남서 | 0.5~1.5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남~남서 | 1.0~2.0 | 남~남서 | 1.0~2.0 |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주의 |
| 매우 높음 | 자외선 |
| 좋은 | 미세먼지 |

◇ 주간 날씨

| | 31(수) | 8/1(목) | 2(금) | 3(토) | 4(일) | 5(월) | 6(화) |
|-------|-------|--------|-------|-------|-------|-------|-------|
| ☀ | ☀ | ☀ | ☀ | ☀ | ☀ | ☀ | ☀ |
| 25/35 | 24/34 | 24/34 | 24/35 | 25/35 | 25/35 | 25/34 | 25/34 |

여순사건 지원 시민추진위 출범...특별법 제정 앞장

여순사건 희생자 지원사업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 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추진위는 이날 여수 시청 상황실에서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수시는 관련 조례를 토대로 민간인 유족, 순직 군·경 유족, 시의회, 안보·보훈 단체, 시민사회 단체,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관계자 2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인 김병호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이사장, 부위원장은 순직 경찰 유족 대표 남중욱 씨가 맡았다.

추진위는 여순 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세부 계획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또 추진위는 문화예술 행사, 71주년 합동 추념식 등을 준비하고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여론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여순사건과 관련해 5개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

광주 남구 민간 아파트 ‘1호 구립 어린이집’ 탄생

광주시 남구 효천지구 민간 아파트 단지 내에 첫 번째 구립 어린이집이 오는 11월 문을 연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동 시설물 유상 임대 등을 통한 공동 수익을 쫓기보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보육을 강화했으면 하는 마음이 반영됐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구청 7층 구청장실에서 효천지구 중흥S클래스

스 에코파크 입주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설 민간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식’이 열렸다.

효천1지구에 들어선 중흥S클래스 에코파크는 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곳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해 12월 입주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관리동 시설을 무상임대료 전환, 구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해 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대학 1·2학년 학생 학원 강사 될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교 1~2학년 학생들도 국·영·수 등 교과 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1·2학년 학생들이 학교 교과 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교습학원 강사로서 능력과 지식을 갖춰어도 법적으로는 학원 강사로 일

할 수 없는 탓에 편법과 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1~2학년도 교습학원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교육청 직원 국외 연수 실효성 의문”

“외부 위원 없이 셀프심사”

4년새 8배 이상 증가

광주시교육청의 국외 연수 참가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사는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 연수 참가 인원은 2015년 20명→2016년 27명→2017년 54명→2018년 167명으로 4년 새 8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133명이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국외 연수 심사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8건, 올해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외여행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여행심사위원의 경우 부교육감을 비롯해 국장, 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됐고, 외부위원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모임 측은 “상당수 국외연수가 사업 부서장의 내부위임 전결을 통해 허가 처리됐고, 외부 심사위원이 없어 공무원들 간 형식적인 ‘셀프심사’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위촉직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